

내 심정 알고 내 뜻대로 행하며,
선생 말을 듣는 자가 재림을 맞는 자다

작성일: 2011. 8. 26. (금)

작성자: 주사랑빛

[지역 집회를 위해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
주님과 대화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.
창밖을 바라보며 대화하는데 기성의 큰 교회들이
계속 보였습니다.

“주님, 기성교회가 참 많네요.”

말씀드리자,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교회는 많은데 내가 거할 곳은 없다.
섭리사는 나의 안방 같은 곳이다.
겨울이 되면 바깥은 너무나 춥다.
따뜻한 안방이 필요하지.
시대가 악하여 세상은 한겨울이구나.
난 안방에서 거한다.
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
추운 겨울 눈보라 몰아치는 바깥세상 보면서도
기어이 나가려는 자가 있구나.
바깥사람들이 얼마나 추위에 떠는지 보면서도
기어이 문 열고 나간다.
결국 한 번 나간 집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
면서.
선생이 더 애타 날 붙잡고 간구하는구나.

사랑하는 자야.
저 세상을 봐라.
병들어 시름시름 앓는 노인처럼
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구 세상은 시름시름 앓는다.
그들 나름 신을 찾아보아도 그 신들은
지하 깊은 곳에서 고통 받느라 바쁘다.
무엇이 참 진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
방황들만 하고 있구나.
수많은 십자가가 나를 부르나 나는 갈 수 없다.
그곳은 나 예수를 신랑으로서가 아닌,
십자가에 매달린 예수,
권력과 형식, 외식의 희생양으로만
나를 바라볼 뿐이다.
나는 발길 돌려 내 신부 있는 그 집으로 향한다.

그곳에 버젓하니 십자가 하나 없어도,
폭신한 장의자 하나 없어도,
잘 꾸며진 거대한 단상이 없어도,
나 예수가 마음 편히 거할 내 사랑방이다.
마치, 남녀가 결혼해 첫 살림을 단칸방에서 시작해
도
개가 쏘아지고, 사랑이 쏘아지듯
선생과 나는 그 곳 한 평이면 족하다.
그곳에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,
오직 그 마음에 사랑뿐인 나의 신부가 있으니 말이
다.
과거 기도굴 좁은 곳에서 내 심정 다 쏟아 냈듯이
재림이 문 앞에 이른 이때,
내 심정 다 쏟아 내는 곳이 바로 그 곳이다.
나 예수가 육신 쓴 마지막 밤을 보낸
갯세마네 동산도 그러한 곳이었지.
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나를 에워싸던,
육신으로서는 마지막 날이었던 그날도
나 홀로 있지 않았다.
사랑하는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셨다.
나는 그날 밤처럼 늘 선생 곁에서 매일 밤을 보낸
다.
사랑하니 떨어질 수 없고,
사랑하니 온통 눈물만 떨어지는구나.

참으로 아이러니하지.
왜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
내가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.
진실로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.
그 식은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
점점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.
사랑은 구원을 좌우한다.
사랑의 정도에 따라 구원급이 달라진다.
선생이 몸부림으로 사랑의 성산에 올라
왕의 패를 받지 않았다면,
그 왕의 패로 지상에 내려와 통치하지 않았다면,
온 나라가 혼란의 연속이요,
다른 나라의 침범,
즉, 사탄이 개인 마음의 담을 모두 헐고 침범함으로
아비규환, 사망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.
선생은 왕의 패를 받은 자,
나 예수가 인정하고 모든 권력을 넘긴 자,
단순히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닌 나와 한 몸 되어
역사를 이루는 자, 통치자이다.

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 자,
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로
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수천 번 얘기했
다.
줄다리기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당겨야지,
혼자 다른 방향으로 당긴다면 같은 편이라 할 수
없지.
나 예수가 원하는 방향은
지구 세상에서 선생이 가장 정확히 안다.
선생 말대로 당겨라.
그것이 재림의 방향이다.
내 심정 알고, 내 뜻대로 행하며
선생 말을 듣는 자가 재림을 맞는 자다.

내 신부야, 보라.
세상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노년기에 들어섰다.
재림의 고지가 보여도 더 이상 걷지도 뛰지도 못한
다.
섭리만 청춘의 빛을 뿜내며 뛰어간다.
날아간다.
가장 선두에 선생이 있구나.
그러니 이곳에서 끝까지 하여라.
마라톤을 할 때도 선두 그룹 놓치면
순위권 안에 들기 힘들다.
일등으로 달리는 자 뒤에 바짝 붙어 뛰어야 한다.
선생 뒤에 바짝 붙어 뛰어오너라.
섭리사가 선두 그룹이다.
벗어나면 안 된다.
섭리사 나의 신부들을 믿는다.
사랑하니 힘내.
사랑해.
주 예수 그리스도.